

# 표발 훑는 정청래, 美서 희희낙락 장동혁... '극과 극'

鄭, 부산 찾아 전재수 밀어주기... 핵심 승부처 필승 의지  
野, 美 출장 사진 올린 張에 한숨... "상주가 노래방 간 꼴"

6·3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복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불멘소리가 나오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15일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부산을 찾아 전재수 후보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를 소개하며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진짜 부산 사나이이다.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파란 바람으로 파란(波瀾)을 일으킬 해양 수도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 인구 유출과 지역 격차 심화로 도시 전체가 계속되고 청년들은 떠나고 그래서 자조 섞인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가슴 아픈 말을 이제는 종식하겠다"며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는 부산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신공항 등 부산 숙원 사업에 대한 이행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5극 3특' 구상 속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했고 해수부 이전 등 부산과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으로 부산 시민에게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위원장은 "오늘 지도부의 방문은 부산에 정말 큰 힘이 된다"며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당 대표와 지도부가 곧바로 부산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이전을 실현한 것만으로도 부산 시민들은 놀랍고 기대는 훨씬 더 커졌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완성이 필요하다"며 "가장 먼저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이전 그리고 해운 공공기관의 집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도 발언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부산 부전지구 부전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6개월 만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 시켰다.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이었다"며 "부산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데 전재수와 부산 모든 후보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 대표는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



김종혁(오른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동혁 대표와 미국 의사당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아 전 후보 등 63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8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대구를 찾은 데 이어 9일 전남 광양, 10일 전남 담양, 11일 강원 강릉을 찾은 등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민심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으며 당내 불만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장 공천 논란을 겪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을 겨냥해 '상주가 노래방 간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조차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거

가서 희희낙락하는 건 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장 대표와 미국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올린 사진을 두고 "2박 5일을 늘려서 5박 7일로 하고, 출국조차도 미국 가서 알린 상황에서, 미국에서 찍어 보낸 사진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장 대표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갈 때는 돌아와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할 만한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전에 당대표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서 외국을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왜 가서 저렇게 오래 있느냐는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에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미국 의사당을 배경으로 찍은 장 대표 사진을 올리며 "미국에 갔으니 사진 찍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힘 후보들은 피눈물 내는데 해외여행 화보 찍으시냐. 꼭 이런 걸 공개해 민주당한테는 조롱받고 국힘 당원을 억장 무너지게 해야겠다"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SNS에 "장동혁 김민수 두 양반이 표도 없는 미국행을 자처 기회해서 당비로 갔는데 무슨 성과 거둬오는 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한동훈 "받았네, 받았어"... 전재수 "열심히 하시라"

韓, 맞상대 아닌 田 연일 공격... 보수 결집 포석  
지지를 상승세 田 "왜곡 선동 링에 왜 올라가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며 공격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15일에도 "받았네, 받았어"라며 전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재수 의원은 오늘도 '까르피에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방송 진행자(YTN 장성철의 뉴스명당)가 '전재수 의원님, 그래서 까르피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도 끝까지 '안 받았다'고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고만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하나만 대신 묻겠다"며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이 되면 '까르피에 뇌물 받은 공무원' 안 자를 건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가 '말 돌리지 말고 까르피에 시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답하시겠나"라고 묻자 "북구에서 열심히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은 까르피에 받았다는 '범죄현장 지문 같은 뼈대 증거'가 있으니 '관련없다'고 하면 허위사실 선거범위 반 당선무효 될까 겁나서 저렇게 '회피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새가슴으로 어떻게 대 부산광역시장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의 공세가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부풀려 부산 표심을 자극하는 한편, 부산 북구에서 3선을 지낸 전 후보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임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 vs 보수' 구도를 통해 보수표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 후보는 한 전 대표의 선거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그는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저를 싸움할 수

있는 싸움의 링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 링에 제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저는 준비된 사람이고, 이미 실적과 성과를 내보인 사람이고, 50대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참체 국면에 있는 이 부산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라며 "끊임없이 저를 싸움의 링으로, 왜곡 선동 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북구갑에 하정우 청와대 AI머래기회수석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보수표 분열 방지를 위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바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